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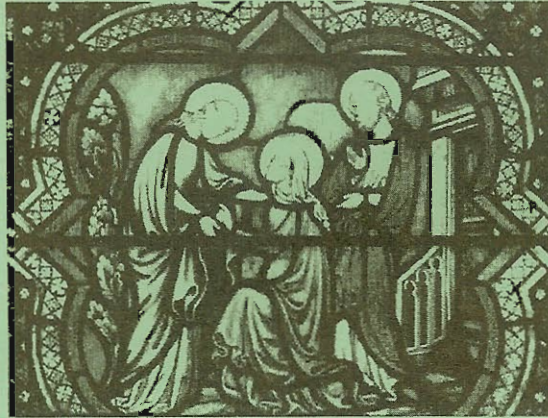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3주일 / 교황 주일(예수 성심 성월)
제30권 31호(다해) 2010-6-27

[묵상]



마리아와 요셉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예수님
유리화, 17세기, 노트르담대성당, 파리, 프랑스

고달픕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기댔 곳조차 없다하시니
당신을 따라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혹합니다.
아버지의 장사도 못 지내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시니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일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결눈질도, 뒤돌아봄도 안된다하시니
누가 감히 시작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다 따를 순 없지만
그대도 저희가
당신 머리 기댔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장사도 지내고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도 나누어
가족들과 함께
당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펼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유진 루시아, 임병삼 마리아 & 이강봉
	(생)이상수 다니엘, 이사벨라 리수수 게렌처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엄은섭 도로테오, 이복내 말파, 장기기증자, 김이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최병기 요셉, 손마리아, 이재이
	(생)김형미 테레사, 고규재 체칠리아, 권오상 바오로, 김현빈 바오로, 한케네스 바오로 & 한제임스 베드로, 유철희 바오로, 서성용 베드로, 정정현 베네딕다 가정, 윤대옥 다니엘 & 신아람 울리아나, 신철규 미카엘, 박씨나 마가렛, 송호민 & 김나영 가정, 미셸 스텔라 가바사와, 채수한 마테오, 애론 푸타발리, 홍석인 체칠리아, 한영남 스테파노 사제,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 Kings) 19,16ㄴ-19-21

화답송 ○주님, 당신은 나의 기업이오이다.
<전례성가 83, 연중 제13주일 다해>
○주님, 나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몸이오이다. 주님께 아뢰오니 "당신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기업, 내 잔의 몫이시니,
내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깨달음을 내게 주신 주님을 기리오니,
밤에도 이 마음이 나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리다.○
○그러기에 내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놀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두시리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릿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주시리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5,1.13-1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Luke) 9,51-62
영성재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9	243
봉헌	364	268
성체	Shout To The Lord	303
파견	383	238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

42). 생명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것,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임무이다. 하느님께서 세상 전체에 대한 당신의 주권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살아있는 형상인 인간을 부르신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창세 1,28)

이 성서 대목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주권의 폭과 깊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온 세상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이다. 지혜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주님.....당신의 지혜로 인간을 내시어 당신 손에서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지혜 9,1.2-3) 시편 작가도 인간에게 주신 지배권이 창조주에게서 오는 영광과 영예의 표징이라고 찬양한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 물속 길을 두루 다니는 것들이옵니다."(시편 8,7-9) 인간은 세상의 정원을 경작하고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창세 2,15 참조),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하느님께서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과 생명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생태학적인 문제는 성서 안에서 생명과, 모든 생명의 큰 선의를 존중하는 해결책으로 안내해 주는 분명하고 힘있는 윤리적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 생태학적 문제의 범위는 다양한 종의 동물들과 다른 생명 형태들을 지닌 자연 서식물들을 보존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 생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까지 이릅니다. 실제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배권"은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며, 우리는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부과하셨고,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하신 금지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한계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에도 따라야 함을 충분히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연을 훼손시킴으로써 이 법칙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43). 인간이 어느 정도 하느님의 주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특별한 의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임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에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계속)

“당신은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큰 어른이자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정치가도 되고 때로는 행정가도 되며 때로는 외교관이 되기도 하지만, 교황님은 결코 정치가도 행정가도 외교관도 아닙니다. 교황님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입니다. 바로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장 참조)는 분부를 세 번이나 들었던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은 분이 교황님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교황님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 위를 걸어서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목자는 어떤 덕목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강론도 잘하고 미사도 정성스럽게 거행하면 좋은 사목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병자 방문을 정성껏 자주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애쓰면 역시 좋은 사목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성당도 잘 짓고 신자들과 친교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덕목들은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목자의 최우선적인 덕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목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도 하느님과 기도 안에서 일치하면서도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문득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한 23세 교황님의 일화 하나가 생각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비서가 방이란 방은 다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기도실에 앉아 있는 교황을 발견했습니다.

비서 신부가 교황에게 기도실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무엇을 했냐고 묻자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거기 그냥 앉아서 말했지. ‘당신은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하셨습니까?”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한 마디도 안 했네!”

교황님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사람이며, 신자들인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 교황인 베네딕토 16 세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했듯이,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나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열면서 그분의 현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일 없이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일에만 눈이 팔려서 우리 눈을 하느님을 향해 돌어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끝내 룯의 아내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될지도 모릅니다.(창세 19,26 참조) 예수님을 따른다고 ‘립서비스’만 하고 눈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밭을 헐터며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 년의 절반이 지난 오늘부터 다시 한 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당	신덕례 대례사	채승희 에스터	해설자	송민영 보나	전남숙 리디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7월

◆병자 영성체 : 1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성시간 : 1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하버/카슨 구역

◆성모 신심 미사 : 3일(토) 오전 8시30분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6월26일(토) 오후 6시 2명의 아기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사벨라 리수수 개랜저 ♥미셸 스틸라 양 가바사와 이 두 아기가 하느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배론 청년의 밤
- 임기끝과 시작을 맞이하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 일시 : 오늘(26일) 특전 미사 후 강당
- 주제 : 'Hawaiian'
- 푸짐한 상품, 저녁식사와 카테일 제공
- 새 회원 모집 : 많이 참석해주세요.
- 문의 : 신임회장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부회장 강호우 안토니오 ☎(310)951-8509

- ◆ 마가렛 매리 본당 패트릭 탐슨(몬시놀) 주임 신부님 은퇴식
- 백삼위 한인성당이 소속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패트릭 탐슨 몬시놀께서 15년 본당 사목을 뒤로 하시고 은퇴하십니다. 그 퇴임 파티에 우리 본당 교우들도 초대했었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7일) 오후 3시
- 장소 : St. Margaret Mary Church
25511 Eshelman Av. Lomita, CA 90717
- 문의 : ☎(310)326-3364

- ◆ 성인 복사단 모집
- 주일 아침 미사(오전 7시30분)에 복사하실 어른 교우를 모집합니다.
- 신청 : 윤희동 안토니오 사목회 부회장 ☎(310)365-7871

-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
- 6월29일은 초대 교회의 중심이며 기둥 역할을 하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두분을 기리는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충실히 수행한 순교자인 두 분의 빛나는 열정과 순교 영성을 본받아 충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배일미사에서)
- 일시 : 6월29일(화) 오후 7시30분
- 전례봉사자 교육 : 미사 끝난 후 성전에서 있습니다.
- 대상 : 성혈봉사자, 해설자, 독서자, 복사 포함

- ◆ 본당 소공동체 성전헌금 봉헌
- 소공동체(부장 김씨니 클라라)에서 성전헌금으로 \$1,500을 봉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예비자 교리 시작
- 지난 주일 예비자 환영식을 갖고 그 첫 교리가 24일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명으로 출발했지만 더 많은 예비자들이 교회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신자들이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문의 : 복음화 분과 김충섭 마틴 위원장 ☎(213)820-7636

- ◆ 판매중입니다!
- 한글-영어 합본 상장예식서 : \$15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합니다.
- 본당 건물 북쪽 양 코너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했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7일(주일) : 토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7월4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교복	김낙기	김미성	김양금	김우용
	김일선	김준호	김현숙	김형순	노천수	박기돈
	박순자	박완철	박정희	박현주	박현주	서평교
	소성택	신대철	안태갑	오명섭	오세원	오진희
	오현희	유경자	유선식	육근주	이경용	이영석
	이용식	이인두	장수창	정상봉	정연영	정열모
	정지숙	정혜홍	주영석	채양식	최미열	최원석
	최의수	최현찬	한연만	허정자	황지영	
	박제이콧			합계 :	\$6,480	
미사헌금 : \$3,047	재활용 수입 : \$111					
성전헌금	권태만	김교복	김낙기	김미성	김양금	김우용
	김일선	김현숙	김형순	노천수	박기돈	박순자
	박완철	박정희	서평교	소성택	신대철	안태갑
	오세원	오진희	오현희	유경자	유선식	이경용
	이영석	이용식	이일길	장수창	정상봉	정열모
	정지숙	정혜홍	채양식	최미열	최원석	최의수
	최현찬	한연만	황지영	박제이콧		
				합계 :	\$6,461	
감사헌금 : 박제이콧	도네이션 : 한남체인 \$355					

공지사항

◆ 선데이스쿨 서머캠프 참가 학생들을 위한 주일미사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오후 1시40분 성당
(지난 금요일 카추마 레이크로 서머캠프를 떠났던 본당 선데이 스쿨 학생들이 오늘 오후 1시30분경 성당에 도착해서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후 2시30분에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해산합니다.)

◆ 신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6월5일 첫영성체 예식과 함께 세례를 받은 5명의 학생들은 사무실에 가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 있습니다.

선데이스쿨과 한국학교가 지난 주일 종업식을 끝내고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름방학중에도 주일학생미사(오전 9시30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참가비 : \$195 * 접수: 주일학교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Riverside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
- 참가비 : \$160 * 신청 : 이유나 ☎(562)319-3456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해외봉사회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 이냐시오 영성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6일(금)~10일(화)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오 5,3)
- 지도 : 이영찬 사도 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30
- 문의 : 김레지나 ☎(310)748-9710

이번 주 단체 모임

6월 사목상임위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이아가다 328-0847 6/19(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경용 야고보 530-7702 6/19(토) 오후 7시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6/17(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12(토)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6/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화수 올리야나 213-248-4576 6/18(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6/9(수)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남현 막시모 793-7733 6/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황지영 안젤라 895-8624 6/18(금)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재연 다두 634-2283 6/5(토) 오후 7시 강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6/12(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희영 안나 544-8245 6/1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2(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도완 다니엘 892-1213 6/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메스 541-0767 6/8(화) 오전 10시30분

클릭! 교리

헌금과 교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미사를 드릴 때 헌금을 안 내면 죄가 되나요? 또 헌금과 교무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헌금을 바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이므로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사 중에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화가 본래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의 근원이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재물의 근원을 하느님께 두지 않을 때 우리는 곧잘 물신숭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릴 자유나 존엄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신자들은 헌금과 별도로 매달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냅니다. 교무금은 교회의 유지와 운영, 선교활동, 교육,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 정의를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과 교무금을 바치는 것은 구약성서의 십일조 전통에서 유래합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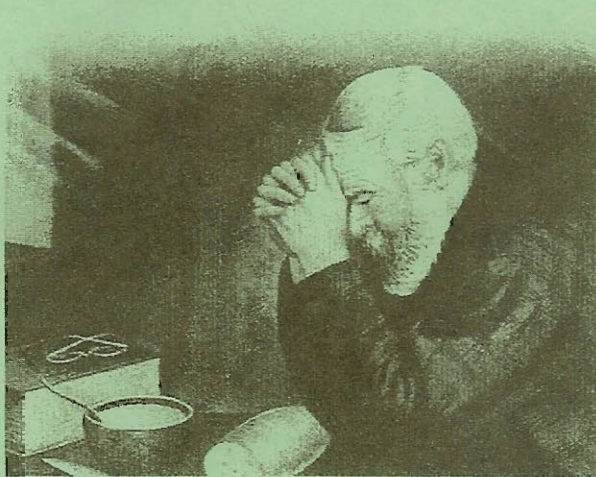
또한 초대 교회 신자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사도 4,32-37 참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신자들은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게 됩니다.

☞ 성당 마당에 세워져 있는 성모상과 성당안의 성인상 앞에서 교우들이 기도를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상(聖像) 앞에서 그냥 절만 하는 교우도 많은데, 성호경을 하고 인사를 하면 틀린 것이지요?

성모상이나 주보성인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는 신심행위입니다. 성상 앞에서 간단하게 절만 해도 되겠지만, 성호경을 하고 기도를 바쳐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거룩한 장소에 신자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모셔왔습니다.



신자들은 이 성화상(聖畵像) 앞에서 혼자 또는 여럿이 기도할 수 있으며, 촛불을 켜거나 꽃으로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나 조각상 자체에 어떤 신성이 있다고 믿거나 예배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로 보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화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성인들을 공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들을 조각한 성상은 신자

들에게 성인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성인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도록 일깨워줍니다. 성화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림이나 조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를 어느정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식사 전 기도보다 식사 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요?

식사 전후 기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사 전 기도는 잘 하지만, 식사 후 기도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사 전후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열심히 바칩시다.

식사 전 기도 : 음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느님이 주셨고 생명을 위해 먹는 음식도 하느님이 주십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음식의 축복과 함께 우리 자신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예비자들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 성호를 그으며 식사 전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식사 후 기도 : 식사 후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음식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듯이 죽은 이들은 우리의 기도와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연옥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식사 후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는 우리의 식사 후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자료